

[남성제자리찾기] 깨어라 남성들이여!

「남자입니까?」 ② / 1998 / 페이지수: 4

가나안 땅은 언제나 인간의 극대화된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 노릇을 해 왔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당신 백성의 잠재력을 최고도로 이끌어 올리시는 곳이다. 따라서 가나안은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 정서, 육체, 더 나아가서 결혼, 자녀, 직업에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나는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임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그분의 ‘당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또한 거기에서 당신은 최상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상그리라(Shangrila;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 Lost Horiam」에 나오는 이상향의 이름-역자주)는 환상이었지만 가나안은 실제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열거된 다섯 가지 큰 이유들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들은, 왜 오늘날 남자들이 삶에서 가나안 땅을 성취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동일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가나안 땅의 결혼, 사업, 부자관계, 교육을 세우기 원하신다.

이것은 당신의 모습일 수도, 당신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다섯 가지의 굵직한 죄들은 지금도 현대 남성들을 물들이고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능성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자, 그 죄들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자.

1) 악을 즐김

여기서 악을 즐긴다 함은 반드시 성적인 것만이 아니다. 물론 뒤에서 성적인 범죄들을 다룰 때에도 악을 즐거움이란 요소가 등장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밀쳐버리는 자기만족에서 나오는 악이다. 또 자아가 원하는 바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만족, 또는 총족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참된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준다. 하지만 악은 손에 넣기를 원한다. 그것은 악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은 주지만 악은 빼앗는다. 삶의 전체 방향은 이 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달라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향유하던 것들을 갖기 원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발길은 가나안으로 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연인이기보다는 쾌락의 연인이었다.

당신은 오늘날에도 누군가가 악을 즐길 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들의 만족을 구한다. 당신은 또한 사람들이 사랑할 때 위에서 말한 표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사랑

하는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한 남자, 비록 결혼하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찾으려하고 아내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며 불만스럽게 한다면, 그는 성적으로 그의 아내에게 악을 즐겨 행하는 것이다. 만일 청년이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다가 그녀 혼자서 임신한 사실을 알고 겁에 질리게 한다면, 그는 단지 악을 즐겨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동업하는 다른 동업자를 배척하면 그것은 동업자에게 악을 즐겨 행하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들도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 악을 즐겨 행할 수 있다.

자,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악을 즐겨 행하는 행태는 남자들(그리고 여자들)이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2) 우상숭배

우상숭배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체계,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치기에 더욱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가치체계를 말한다.

권력, 특권, 교육, 돈, 사업, 종교, 인기, 자아, 도색영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사찰에서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흥과 스포츠의 신전에서 경배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등록기의 돈 찍히는 소리에 절한다.

한편 어떤 목사들에게는 목회가 우상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목회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배할 짬을 낼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거나 그분을 섬길 시간조차 얻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텔레비전 수상기가 우상이 되었다.

도색영화들은 하나같이 맹목적인 숭배를 요구한다. 이것은 황홀경을 만들어 낸다는 소위 남자의 정력 또는 남자의 마음속에서 그를 만족시키는,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쏟아 붓도록 하는 허상(image)에 근거하고 있다.

피닉스(Phoenix)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여인은 내게 말하기를, 텔레비전 멜러 드라마(Soap opera; 미국에서는 TV멜러 드라마를 이렇게 부른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광고주들이 대개 비누,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이다.-역자주)가 그녀에게 어찌나 자극적이었던지 스스로 황홀한 성 행위를 시작하게 하는데, 때로 대여섯 시간을 그 일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나면 너무 쇠잔해져서 남편의 저녁식사도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텔레비전 멜러 드라마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알콜중독 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했다.

현대 미국의 직장 생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상숭배를 강요하여 왔다. 남자들은 회사를 위해 가정을 희생해 온 것이다. 많은 배우들은 그들 자신을 예배한다. 물론 누구라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보다 자기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팬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기 때문이다.

우상숭배는 남자들이 인격적으로, 결혼관계에 있어서, 직업상에서, 영적으로 가능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3) 간음

이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 범죄를 통틀어 말한다. 죄는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든 부르느냐에 상관없이 여전히 죄이다.

간음은 일반적이 것이 되었으며 성적 난잡함은 성경을 제외하고 오늘날 도처에서 용납할만

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남자들이 이 말을 불태워 없애려 하고 부인하려하며 처형 시켜버리기 원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 단어야말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행위의 도리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준다.

삼손, 다윗 왕, 그리고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관한 행적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성적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산 교훈이다. 그러나 그 경고의 북소리가 오늘날에도 울려 퍼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자 됨(manhood)이 지닌 가능성을 생의 여러 분야에서 계발하고 있는 허다한 남자들이 성적인 범죄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기 때문이다.

미혼, 기혼, 청년, 장년 구분 없이 남자들은 그들에게 단단히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갈망, 기호(appetites), 욕망 그리고 유혹에 매여 있다.

남자들 본연의 임무는 계발되지 않고 있거나 실종된 상태이고 그들의 성품은 미숙하거나 유약해져 있다.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로 칭함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취자들이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남자로서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죄를 범하자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 여전히 남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린 채, 도덕의 모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다.

4) 주를 시험함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우성친 군중들은 그리스도(주)를 시험하였다. 주를 시험한다 함은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상반되거나 그분의 성품에 모순 되는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남자들은 하나님께 십자가 아닌 다른 구원 방법을 요구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곧 주를 시험하는 일이다. 남녀가 잘못인줄 알면서 난잡하게 교제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경건한 훈육을 거부하며, 교인들이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 행사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을 요청하거나, 신자들이 구원의 은총과 죄의 달콤함을 동시에 맛보기 원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시험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주를 시험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남자들도 주를 시험함으로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5) 원망

간단히 말해서 원망은 ‘부정적인 말’ 에 지나지 않거나 그 비슷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 비난, 흠잡기, 헛소문 내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원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를 꼬집어내고 있다. 이 단어는 “후욕하는 자”(railer)로서 중상모략 자, 신성모독 자, 욕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들을 준엄하고 교화적(敎化的)으로 다룰 것을 명령하신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약 3:5)

이것이 혀의 속성이다. 약간의 강조, 의견의 삭제, 비꼬는 말은 마침내 미움의 맹렬한 불길, 전쟁, 적개심을 빚어낸다. 그래서 관계들을 파괴하고 재 밖에 남기는 것이 없다.

남자들은 자동판매기 앞에서 회사 혹은 사장을 원망하다가 급기야 승진되지 못한 까닭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설교자를 원망하면서 왜 자기의 자녀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 답답해한다. 그들은 믿음이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기에는 가나안이 있을 수 없다.

이 다섯 가지 죄들을 살펴보고 나니, 가능성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것들이 원천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이 명약관화해졌다. 이것들은 모든 인류에게 본원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남자들이 안식, 축복, 성공, 능력, 그리고 권위가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이 바로 거기에 머물기 원하는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소원하신다. 그러나 지금도 남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목적하시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성적인 죄에 매여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

<에드윈 루이스 콜>

***출처 : 「남자입니까?」, 두란노**